

본회의 회의록

○ 일 시 : 2025.6.16. (월) 10:30

○ 장 소 : 도서관 자습실

○ 참석자: 조○○, 이○○, 이○○, 홍○○, 이○○, 정○○, 송○○

○ 회 순(회의진행순서)

1. 개회 및 개회선포
2. 위원장 개의 선언
3. 안건심의
4. 기타사항 협의
5. 폐회

○ 상정안건

1. 안건1-1. 2025학년도 중등 1학기말 특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2. 안건1-2. 2025학년도 중등 2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안)
3. 안건2. 유초등부 2학기 방과후 운영계획
4. 안건3. 2025학년도 신규교원 채용결과 안내 및 원어민 재계약관련(안)
5. 안건4. 홍콩 한국국제학교 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6. 안건5. 2024학년도 결산
7. 기타안건

전○○(간사)

재적 운영위원 7분 중에 7분 모두 참석하셔서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학운위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중등 1학기말 특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을 제안하신 선생님께서는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발표자)

중등 먼저 특별 방과후 운영 계획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부터 27일 금요일 사이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시간을 합의해서 10회 차에 걸쳐 운영하게 됩니다. 12학년 특례 입시 강좌로 지필 수학이랑 11학년 화학 1 두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개설하시는 선생님은 지필 수학에 지석우 선생님 또 화학 1회의 김지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체 강사비가 8천 달러가 지출이 됩니다. 학생 납부액이 4천 달러여서 나머지 4천 달러는 4천 홍콩 달러는 교육비 지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신청 학생 명단은 붙임과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2학기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입니다. 올해는 9월 1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개설이 됩니다. 수강료 1 차시당 80 홍콩 달러 또 강사료는 한 차시당 400홍콩 달러 예전 그대로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학부모위원)

강사료는 학생 수 상관없이 400불로 정해지는건지요?

정○○(교원위원)

학생수가 많은 강좌에서 남은 수익은 학생수가 부족한 강좌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12학년 11학년 말로 갈수록 이제 특정 교과 또는 AP 이렇게 되면 2명 이상

	수강생을 모으기 어려운 강좌는 한 두명을 위해서라도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다른 강좌에서 남은 돈들을 통해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강좌별 예산이 아니고 전체 방과후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송○○(교원위원)	고3 학생들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입시를 위해 학교에서 할 일은 거의 끝나고, 방학때까지 2,3주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방과후 형식으로 준비를 돕기 위해 기획한 것입니다.
조○○(위원장)	제안된 안전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음) 상정된 안전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인 유초등부 2학기 방과후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발표자)	이번 유초등 방과후는 운영 방침에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본교 교사와 외부 강사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등과 같이 1차 시당 80분 아이들이 내고 있고 대신 재료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이제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이 생겨서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강사료는 1차 시당 400인데 외부 강사 저희가 지금 오케스트라 음악 선생님들하고 태권도 선생님은 한 차시당 800분 저희가 계산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가 지금 음악 선택 7교시에 하고 8교시 방과 후로 하고 있는데 7교시를 협력 수업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300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당 2개까지 강좌 개설하시고 초등은 이제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냥 1시간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요. 이번부터는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 다음 운영에 반영해서 좀 더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오케스트라 수업이 있구요, 요일별로 인텐스 코리안까지 한 30개 정도 3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요일별로 학년별로 고르게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방과 후 외에도 저희가 ECA가 있어서 수목금의 축구나 수영 그리고 스포츠나 AI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원어민 선생님 두 분이서 쿠킹 편이라는 수업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자 부담이어서 요일별로 예상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 주셨고 이 두 분이서 수업을 해서 학생이 10명 예정이에요. 그래서 10명 일 때 한 명이 한 365분 정도 부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료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함께 이제 납입하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학부모위원)	인텐시브도 이제는 방과 후로 들어가는건가요?
정○○(발표자)	방과 후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인텐시브 코리안은 담임 선생님께서 애는 한국어 공부를 꼭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어 특색 교육 꼭 해야 된다 하셔서 저희가 1학기에도 이렇게 진행했고 2학기에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교원위원)	쿠킹 편 요리수업에 학생들이 호응이 어느 정도일지가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정○○(발표자)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수업인데, 다들 너무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셔서 아이들 참여가 많을 거라고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불을 쓰지 않고 좀 안전하게 하는 메뉴로 짜보았어요.

조○○(위원장)	제안된 안전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의가 있으신가요? (없음) 상정된 안전에 대해 의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인 신규 교원 채용 결과 및 원어민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발표자)	(교원 신규채용 및 재계약 관련 세부내용 설명)
조○○(위원장)	제안된 안전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의가 있으신가요? (없음) 상정된 안전에 대해 의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인 교원 인사 규정 제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발표자)	저희 인사 규정에서 조금 보완할 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 서 이번에 학교 실정에 맞게 조금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비교표를 보시죠. 19조의 2번에 보시면 인사자문위원회 기존에 이제 심의를 요구해야 된다 했는데 자문을 요구해야 된다고 바꿨고요. 저희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 렇게 심의를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봐서 자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심 의 내용이 다 자문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조에 보시면 재계약을 포함 해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 해도 필요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1년에 한해서 고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바꾸고, 이 경우 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걸 추 가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5년에서 이제 1년을 추가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 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재계약 횟수 및 대상에서 저희가 재계약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위 5%에 해당하면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위 5% 해도 한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가 해당하는 인원이 1명 이하일 경우 하위 1명으로 간주한다라는 항목을 넣었습 니다. 징계 부분에서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 이사회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3번 4번에 다 견책이 학교장을 직접 시행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쪽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모든 징계 처분은 법인 이사회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른다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24조 공적 심사위원회에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이제 위원장 위원회 모두 선생 님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후보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래서 결정한다가 아니라 추천한다로 바뀌어서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결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조○○(위원장)	전임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학부모님들이 일괄적으로 5년 만근 후 가시는 선생님을 더 계시게 하자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송○○(교원위원)	예전에 진학부장님이 학교에서 정말 남아 있으면은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분인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귀임을 하셔야 했던 적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학부모위원)	저희 애도 3년째 다니고 있지만 선생님이 사실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또 학부모 입장으로서도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죠.

조○○(위원장)	제안된 안전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음) 상정된 안전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인 2024학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발표자)	간단하게 먼저 큰 금액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앞장은 세입이고 뒷장은 세 줄입니다. 세입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운영을 위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온 수입이죠. 세출은 어떻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회계 기간이 3월 1일부터 학사연도랑 같습니다. 예산 현액이 있고 결산액 예산 현액은 1년 예산을 먼저 짤 때 이 금액으로 이렇게 짜냈고 그다음에 결산액은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이렇게 1년 동안 돈을 쓸 걸로 예산을 한 게 예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결산은 실제로 지출한 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큰 수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큰 수입이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내시는 학비 학비 관련된 수입들이 많고 등록금이 제일 크죠. 이외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 즉 학교 방과 후라든가 캠프를 간다거나 또는 서머스쿨 수입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부모님들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들이 수익자 부담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금액이 합해서 대략 한 900만 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900만 불 학부모님들이 내시는 돈과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금액이 비슷비슷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특히 연말에 정부에서 좀 더 예산이 남은 것을 좀 더 보내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임 교장 선생님이 교육부에 학교의 어려움을 많이 좀 토로를 하셔서 좀 돈을 더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1150만 불 정도가 교육부에서 들어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들어올 때 돈은 이 국고 보조금이라는 내용으로 들어오면서 또 몇 가지 또 다른 것들도 들어오는데요. 제일 큰 거는 인건비하고 학교 운영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 970만 불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올해는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졌어요. 환율 영향도 있고요. 환율이 이때보다 지금 올해 보내줄 때 환율이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올 돈은 작년에 970만 불이 인건비랑 운영비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850만 불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 같은 경우에 학교도 돈을 좀 쓰지만 정부에서도 돈이 내려오고요. 이외에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타 교수 학습 지원비 이런 게 한 3천만 원씩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합치면 한 1,150만 불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정 활동 수입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토픽 시험을 주관하며 임대료로 받는 돈이 있고, 제일 큰 덩어리는 수영장 수익입니다. 수영장이 외부 업체에 저희가 임대를 해줘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저희한테 임대료를 200만 불 넘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한 번에 다 몰아서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이 만큼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좀 이 부분은 아직 국제과정과 조율 중에 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250만 불을 모두 받았기에 좀 넉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자 수입이라든가 전입금 수입 같은 거는 학교에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 기부금 계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거에서 저희가 일부 저희 학교 계좌로 이제 장학금 지급할 경우에 전입을 시켜서 그걸 지출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거는 뭐 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세 줄을 보시면 그래서 세입이랑 세출이 금액이 같은데 한 2350만 불 정도 1년에 한 2350만 불 정도가 들어오고 또 2350 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이 같은 금액이 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똑같이 소수점까지 맞추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온 돈은 들어온 돈에 대해서 남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다음 해로 넘어갈 이월금으로 남겨요. 근데 그 이월금도 지출처럼 밑에 맨 밑에다 잡아놓기 때문에 그게 양쪽이 다 세입이랑 세출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는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모자란다고 하면 수입 쪽에서 차입금을 빌려오든지 해서 맞추겠죠. 수입도 그렇게 해서 세입이랑 세출이 똑같이 맞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나가는 돈도 2350만 불 정도인데 여기에서 제일 이제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크죠. 인건비 비중이 한 1600만 불이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의 급여 그리고 저기 선생님들 말고도 학교에 저희 저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과정이랑 국제 과정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한국과정과 국제과정에 안 분 비율이 있어요.

한국 과정은 몇 퍼센트를 내고 이 사람들 급여를 몇 프로 내고 국제 과정은 몇 프로 낸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 과정이 부담하는 비율 같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보면은 한 60만 1년에 한 1600만 불이 좀 안 되는 돈입니다.

이외에는 학교 운영비는 여기 시설 정비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있고 청소 용역비, 경비 용역비등은 학교 공통 비용에서 저 양 과정이 안분을 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가 건물을 임대해서 쓰지 않고 우리가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나갈 건 없고 그 이외에 전화번호 전화 요금 보험료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양 과정이 안분해서 내고요.

수익자 부담 경비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받은 거를 다시 쓰는데 받은 것만 그대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이 한두 명이어도 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약간은 이게 많이 들어 학생이 많은 데서 좀 이렇게 다른 데다 좀 메꿔주고 할 수도 있지만 학교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자산 취득비는 도서관에 도서 구매하는 비용들 뭐 이 정도니까 그 큰 돈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 시설 대수선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올해 정부에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시설 보수를 하라고 돈을 좀 주는 게 있어요. 특이 소요 예산 뭐 이런 걸 신청해서 받는 게 있는데 올해 한 75만 불 정도를 받았습시다. 75만 불 정도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수영장에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이런 데가 있는데 타일도 너무 낡고 그다음에 막 천장이 막 뭐가 좀 막 물도 새고 위에 좀 너무 뭐가 좀 너무 낡아서 안정상의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수리하는 데 돈을 쓸 예정입니다.

또 미술실에 몇 가지 테이블도 너무 낡았고 무슨 싱크대가 고장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 그 두 가지를 수리하려고 한 75만 불 정도 받은 금액이 있는데 받은 것뿐만 아니고 이제 돈을 갖다가 약간 더 학교 예산을 같이 써서 수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한국 과정이 정부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학교에서 나가야 될 돈들은 국제 과정에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남아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177만 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조○○(위원장)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위원장)	더 논의하실 안건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3회 학운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폐회)
출석위원(7명)	출석위원 (총 7명 중 7명 참석) 조○○, 이○○, 이○○, 홍○○, 이○○, 정○○, 송○○
기록자	홍콩 한국국제학교 사무처 팀장 전○○